

1999년 06월 29일 화요일 13:48 [유병권 기자]

'평준화 고교' 학력신장률 높다

평준화 지역 고교의 학력신장률이 비평준화 지역 고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준화 지역 고교와 비평준화 지역 고교간의 모의수능 평균점수차가 고교3년때에는 입학당시보다 2배 이상 벌어지는 등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준화고교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입시전문기관인 중앙교육진흥연구소가 평준화 고교 1백64개교와 비평준화 고교 1백69개교 등 전국 3백33개교(특목고와 실업고 제외)를 대상으로 96년 3월과 98년 10월 실시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는 학생들을 최상위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눠 교육하는 비평준화보다 모든 층위의 학생을 한 학교에 모아 공부시키는 평준화가 교육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교 입학 당시인 96년 모의고사의 성적은 평준화지역(2백19.5점)과 비평준화지역(2백15.6점)의 차이가 3.9점에 불과했으나 3년뒤인 98년 모의고사에서는 7.9점(평준화 2백51.8점, 비평준화 2백43.9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 평준화 고교는 수능평균점수가 2백19.5점(96년)에서 2백51.8점(98년)으로 3년간 32.3점이 상승했으나 비평준화 고교는 28.3점(2백15.6점→2백43.9점) 올라가는데 그쳐 평준화 고교의 상승폭이 더 컸다.

모의고사 난이도를 조정해 성적향상 여부를 비교해본 결과, 성적이 올라간 학교는 평준화 지역의 경우 51개교(31.1%)였으나 비평준화 지역은 29개교(17.2%)에 불과했다. 반면 성적이 하락한 학교는 평준화 지역은 41개교(25%)였으나 비평준화 지역은 79개교(46.8%)에 달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김영일이사는 “평준화 고교의 학력신장이 높은 것은 성적차이가 있는 다양한 학생들이 한 학교에 모여 공부하면서 상승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인 반면,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간 뚜렷한 양극화 현상으로 학력이 평준화지역보다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유병권기자>